

시민건강분과 커뮤니티케어TFT 2차회의

2019. 3. 19.(화) 10:00, 장안구보건소

김혜경, 송명은, 우태옥, 김혜란, 윤희숙, 조윤희, 박연옥, 김은영 의료급여팀장, 김숙영 의료급여관리사

○ 장기요양 현황 및 과제 (송명은, 박연옥, 조윤희)

1. - 에이징 인 플레이스 목표
2. - 요양시설 간호사의 처지행위 법적 권한(법 개정 필요)
3. - 장기요양등급외 병원 방문 또는 가정간호를 받을 수 밖에 없음
4. - 병원 방문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, 아동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? 가정간호

○ 의료급여

-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: 사회적 입원자(통원치료가능자 등)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주거. 거주지의 문제, 거주지가 있다하더라도 퇴원후 통원치료(이동)의 어려움 호소. 교통약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확대 운영 필요. 수원시 요양병원22개정도 운영, 근거리 화성, 오산, 의왕 등 이용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 있음
 - 집 월세, 식대, 난방비 보다 병원에서 있는 것이 입원비 저렴. 요양병원을 거주지로 활용. 장기입원자700명, 이중 정신과300명, 요양병원400명, 8%정도가 사회적입원자로 추정. 의료급여의 환자의 경우, 주거지나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서 퇴원이 쉽지 않은 상황
 - 병원 입장에서 의료급여환자가 수입원.
 - 가사바우처 시범사업 준비 중. 퇴원을 하려고해도 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퇴원이 쉽지 않음.
 - 장기요양 등급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(3-4등급) 장애인차량 이용 한계. 시 제도 개선 필요. 등급을 받은 사람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
 - 병원에서 주거공간 확보가 안되어,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경우.
 - 매년 장기입원 실태조사. 초기 외래입원, 지금은 장기입원자 관리에 초점. 국비80 : 도비10 : 시비10, 매년1000억 정도, 진료비가98%,
 - 장기입원- 진료비, 생계비 지원.
- => 주거문제, 이동권문제, 통원치료 인식개선
- 지자체 단위- 건강생활센터 구축, 중앙정부- 법률, 제도 개선 요청 등

○ 차기회의

- 1차 의료기관 의사회 강태경이사, 요양병원 의견 청취

○ 커뮤니티케어 교육

- 은평구 의료사회복지사회적협동조합: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사례, 쿠바 주치의, 관계자까지 확대하여 진행